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3. 2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獨, 테러 모의혐의 이슬람극단주의자 10명 체포

- 3.22 독일검찰은 시민 상대로 차량·충기를 이용해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비스바덴에서 거주하는 형제 2명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 10명*을 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발표

* 용의자들은 무기상과 접촉해 왔으며, 테러에 사용하기 위해 대형차량 대여

○ 伊 극좌 테러리스트 「바티스티」, 살인혐의 첫 인정

- 3.25 BBC 방송은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38년만에 본국으로 송환된 이탈리아 극좌 테러리스트 「체사레 바티스티」(64세)가 옥중조사에서 처음으로 4건의 살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

* '95년 伊경찰관·정육점주인·보석상 피살 혐의 유죄 인정, 궤석재판에서 종신형 선고

미 주

○ 美, 캘리포니아 이슬람사원 화재현장에서 '뉴질랜드 참사' 낙서발견

- 3.24 AP통신은 캘리포니아주 에스콘디도의 한 이슬람사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으며, 화재현장 인근에서 뉴질랜드 참사를 언급한 낙서가 함께 발견되었다고 보도

* 사원 안에서 잠을 자던 신도 7명이 자체진화 하였으며, FBI가 수사 착수

○ 트럼프의 골란고원* 이스라엘 주권 인정에 대해 국제사회 강력 비난

- 3.25 美 트럼프 대통령이 헤즈볼라 등 테러조직이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공격거점으로 삼으려 한다며 안전보장 측면에서 주권을 인정하자, UN·터키·시리아·사우디 등 국제사회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제히 비난

* '67년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 영토로, UN은 불법점령으로 규정

아 · 태평양

- 뉴질랜드 총격테러, 최고등급 ‘왕립조사위원회’^{*}서 조사
 - 3.25 「아던」 총리는 총격테러를 최고등급 조사기관인 ‘왕립조사위원회’에 맡겨 △ 사전예방가능성, △ 반자동소총 취득, △ SNS 역할 등 종합적인 사건조사를 할 것이라고 천명
- * 대법원 판사가 위원장을 맡고, 정부로부터 독립된 뉴질랜드식 특검
- 오스트리아, 뉴질랜드 테러범 기부금 받은 자국 극우단체 조사
 - 3.27 英 BBC는 오스트리아 수사당국이 극우단체 「오스트리아정체성운동」이 뉴질랜드 테러범으로부터 기부금(1,700달러, 약 193만원)을 받은 것으로 파악, 同 테러와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

중 동

- 쿠르드, ISIS 가담자 시리아 국제법정에서 재판 제안
 - 3.25 시리아 쿠르드 집행부는 자신들이 수용하고 있는 외국인 ISIS 가담자 1만명에 대한 본국 송환요구가 각국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음에 따라, 시리아 북동부에 국제법정을 설치하여 재판할 것을 국제사회에 수정 제안
- 이스라엘, 텔아비브 로켓 피격으로 7명 부상
 - 3.25 AP통신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미상세력에 의해 발사된 로켓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떨어져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,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응을 예상한 하마스 지도자들은 지하로 피신했다고 보도
- * 최근 이스라엘은 총선(4.9)과 골란고원의 주권문제로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

아프리카

- 케냐, ‘테러범 양성소’ 악용 우려로 세계최대 난민캠프 폐쇄 방침
 - 3.26 AFP통신은 케냐정부가 테러범양성소로 악용된다는 이유로 ‘세계최대 난민수용소’라고 불리는 다다브 난민캠프(20만9979명 수용, '19.1 기준)를 올해 8월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

벨기에 브뤼셀 연쇄폭탄테러

- '16.3.22 브뤼셀 자벤텀 국제공항과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 1시간 시차를 두고 연쇄 자살폭탄테러가 발생, 테러범 2명을 포함한 34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당한 벨기에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기록



- 첫번째 폭발은 '16.3.22 오전 8시경 브뤼셀 인근 자벤텀 국제공항 출국장 및 아메리칸항공 발권창구 인근에서 잇달아 발생하였고, 세 번째는 오전 9시경 브뤼셀 도심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 발생
 - * 출근시간 공항과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의 불특정 민간인을 겨냥해 사상자 다수 발생
- 테러범은 이민자 출신 무슬림으로 추정되며,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는 브뤼셀 연쇄폭탄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발표
 - * 벨기에는 무슬림 이민자가 많고('16년 인구 1,100만명 중 50만명), 높은 실업률과 차별대우로 이민 2, 3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 유럽의 지하디스트 소굴로 불림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하마스(Hamas) >

- **(결성)** 이집트 '무슬림 형제단'의 팔레스타인 지부소속 강경세력들이 1987년 제1차 '인피파다'(對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중봉기)를 계기로 결성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.10), 영국('01.3), 캐나다('02.11)
- **(연계세력)**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, 인민저항위원회(PRC)
- **(핵심인물)** 칼레드 마샬(現 지도자), 이스마일 하니예(군사부문 책임자)
- **(활동지역)** 팔레스타인 가자, 서안지구 및 레바논지역 팔레스타인 난민캠프
- **(활동수법)** 對이스라엘 군·민 대상 폭탄테러, 총격, 로켓공격 및 납치
- **(주요테러)** '08.12~'09.1 이스라엘군과 하마스간 '가자전쟁' 발발 800여명 사망
'12.11 텔아비브에서 PIJ조직원과 버스폭탄테러 자행, 29명 부상

